

혁신도시 기업 3년간 100% 면세 추진

정부 '혁신클러스터 시즌2'

기업 투자 유도...4차 산업 육성

혁신도시발전센터 건립도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도시가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혁신도시를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혁신도시별 벤처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혁신도시발전센터도 건립된다.

8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지자체 11개 혁신도시 담당자들을 초청

해 혁신도시 지역발전 거점 육성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거나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기업도시 입주 기업들이 받는 세제 혜택이다.

혁신도시는 원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고 기업 입주는 분류가 아니었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있었지만 혁신도시에 내려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고, 산학연 클러스터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산학연 클러스터에는 연구기관이나 벤처기업 등이 소자본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임대공간과 컨벤션 등 기업지원 기능을 갖춘 '혁신도시발전센터'가 건립된다.

부지는 지자체가 제공하되, 건물 공사는 국토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별 도시지사가 공공기관 연계 사업이나 산학연 클러스터, 정주여건 개선, 인근 지역 상생방안 등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

이다. 지역 전략산업이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접목한 공공기관 연계사업을 지역 거점화 사업으로 지정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과 접목해 구도심이나 노후 산업단지를 지역거점화 사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 선도지구로 지정하고서 생활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기 위해 국토부의 담당조직인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은 '혁신도시발전지원단'으로 개편된다.

혁신도시별 해당 지자체 중심의 발전추진단과 발전위원회도 구성된다.

/오광록기자 kroh@연남뉴스



한전·경북지역학교,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196개교 태양광 발전 협약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5일 경북도교육청과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북지역의 초·중·고교 및 폐교를 대상으로 옥상 유류공간에 약 2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전은 햇빛새싹발전소(주)와 함께 196개 학교(학교 158, 폐교 38)에 100k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참여 학교에게는 연 400만원(1kW당 4만원) 옥상 임대료와 설치지원금 7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후 운영실적 분석 후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학교에 환원하고, 추가로 학교 전기설비 무상점검, 에너지컨설팅(ES-

CO),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장 구축, 전기 및 에너지 관련 교육활동 등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대전과 서울시교육청, 올해 1월 경남도교육청, 5월 포스코 교육재단에 이은 5번째다.

한전 측은 지난 4월 학교 태양광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와 더불어 본 업무협약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추진동력이 돼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시호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학교 태양광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데 큰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전은 설치지원금 지급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홍보해 교육복지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콘텐츠진흥원 베이징 설명회

100개 업체 참가 뜨거운 관심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은 지난 7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의 우수 스토리를 중국 콘텐츠 기업들에게 소개하고, 한·중 콘텐츠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를 지원하는 'K-Story in China'를 개최했다.

'K-Story in China'는 영화, 드라마, 출판 등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국내 우수 원천스토리를 중국의 콘텐츠 제작자 및 유통,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행사다.

중국 베이징 한국문화원에 위치한 한국 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북경비즈니스센터의 인프라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약 4대 1의 경쟁률을 뚫은 10편의 작품들이 소개됐다. 2011년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수상작으로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 추진 중에 있는 스튜디오 게일의 '백만장자 우디', 네이버 TV캐스트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기린제작사의 웹시트콤 '내일부터 우리는', 다수의 중국 웹툰 사이트에 연재 중인 ㈜유디드림의 '흡혈고딩 피만두' 등 다양한 장르의 스토리가 선보였다.

행사에서는 한·중 콘텐츠 기업 간에 공동제작과 판권 수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1대1 비즈니스 매칭이 진행됐다. 한한령 이후 한동안 한·중 관계가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00여 개의 중국 콘텐츠 기업들이 참가했고 190건 이상의 비즈니스 매칭이 진행되는 등 중국 시장의 관심이 반영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T는 9일까지 미얀마 양곤에서 열리는 '2017 미얀마 식품박람회'에 한국관을 개설하고 19개 업체의 전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A.T 제공>

한국 19개 업체, 미얀마 입맛 잡아라

aT, 식품박람회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한국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되는 '2017 미얀마 식품박람회'(Food&Hotel Myanmar)에 참가하고 있다.

미얀마는 시장개방 이후 포스트 베트남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수입식품 시장 규모가 매년 20% 이상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또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식품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aT는 지난해 대비 참가업체 수를 늘려 총 19개 업체가 참가하는 한국관을 개설하고 전시·상담을 진행 중이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27개국 230개사가 참가하는 미얀마 최대 규모의 국제식품산업 전문박람회다. 현지 유통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티마트 홀딩스가 참가하는 유일한 전시회라는 점에서 미얀마 지역의 한국식품 시장을 개척하는데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T는 기존의 인기 제품인 소주, 면류를 비롯해 홍삼제품, 건강 음료, 조미김 등 수출 성공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유망

품목으로 한국관을 구성하고 현지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또 3일의 박람회 기간 동안 한국관 내 식문화홍보관에서 김밥, 파전, 버섯불고기, 닭갈비 등을 선보이는 시연·시식·시음 행사도 진행한다. 한국음식을 방송 등 미디어로만 접했던 현지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한류 인기몰이를 재현한다는 방침이다.

백진석 aT 식품수출부장은 "미얀마는 개방 이후 국가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식품소비 수준과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역시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시장개척단 파견, 지속적인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전KDN, 중소기업 연구지원 공모

한전KDN(사장 임수경)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정부3.0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도 협력연구개발사업을 오는 7월 14일까지 공모한다.

지난 2005년도부터 매년 시행 중인 협력연구개발사업은 한전KDN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전력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 신제품 등을 개발해 사업화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한전KDN은 협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12년간 33개 중소기업에 55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도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전력ICT 분야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기술·신제품·신공법의 연구개발',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키거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연구개발' 또는 '품질과 가

경쟁력을 갖춘 수입대체 국산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협력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되면 총 연구개발비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개발기간은 24개월 이내, 지원 과제는 기업당 1개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KDN 전자입찰시스템(www.power-ec.com)과 홈페이지 중소기업지원 사이트(www.kdn.com/jungso)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올해 협력연구개발사업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5% 늘어난 12억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동반 성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유망한 전력ICT분야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정부 3.0정책에 부응하고, 우수 중소기업 육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ICT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